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

물 한 방울 찾아볼 수 없는 거대한 사막 위에

작은 씨앗 하나 심어보자.

같은 하늘 아래 이곳에도 비가 오면 참으로 좋으련만

작은 모래들이 모여 모래 돌풍 커져만 간다.

모래 돌풍 무관심 속에 사람들까지 집어삼켜

이곳에 혼자 남겨져 있네.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누구라도 옆에 있으면 좋으련만

작은 씨앗들이 오로지 나를 온기로 안아준다.

씨앗을 뿌려라 멈추지 말고 뿌려라

너만이 지금 나에게 전부이다.

모두가 나를 외면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구나.

뿌리를 내려라. 땅속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려라

너만이 지금 나에게 운명이다.

사람들의 탐욕, 부정, 혼탁들이 모여 시들어진 씨앗들이

셀 수 없이 커져만 간다.

다시 한번 씨앗을 뿌려라 멈추지 말고 뿌려라

사람들의 정직, 공정, 성실들이 모여 흡수하기 시작한다.

진실한 마음 전해져 모래 위에 작은 풀씨 돌아나기 시작한다.

온갖 까만 마음 뿌리치고 순수한 별들 따라가니

나무가 되어 나를 반겨주네.

더 이상 이곳은 혼자가 아니구나.

더 이상 이곳은 사막이 아니구나.

메마른 땅 아래 하늘마저 기뻐 눈물을 흘려주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사랑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도 행복하구나.